

12. 제주 정신사(精神史)에 빛날 세 여인(女人)¹⁷⁾

제주도를 창조한 신은 여신이었다. 설문대할망으로 알려진 그 여신은 얼마나 거구였는지 그의 옷을 만들려면 명주 백 필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는 치마로 흙을 날라다 제주섬을 만들었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를 흔히들 ‘여자의 섬’ 이라고 말한다. 한라산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모든 산들이 여인의 산세(山勢)라고 한다. ‘여다’를 포함하여 ‘삼다도’라는 대명사가 생겨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도 그런 현상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7) 『한라일보』(삼각봉), 2000. 12. 07 (목), 논설고문.

‘여자의 섬’ 제주도

조선시대 이후 남녀의 추이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도 꾸준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여다가 물론 물량 통계 때문에 생겨난 말은 아니다. 사회활동이나 정신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몫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문화원이 펴낸 『제주의 여인상』을 보면 제주 여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딛고 아끼찬 일들을 해냈으며 제주의 정신문화사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알 수 있다.

1814년(순조 14) 김영집(金英集) 영업(英業) 영락(英樂) 세 형제가 나란히 문과에 동방급제(同榜及第)한 사건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도민에게 높은 긍지를 심어 주었다. 이때 세 형제가 모두 과거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시취관의 결정에 따라 셋째 동생 영락을 차서자에게 양보하고 발방 되었지만 어쨌든 전 도민을 경탄시킨 화제가 되었다.

이들 세 형제를 급제시킨 배경에는 오드승방 정부인이라는 한 여인의 각고의 집념이 있었다. 학자의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시집갈 때 친정에서 학자들을 길러 낸 윤희리나무 회초리 하나를 들고 갔다. 남편이 과거를 포기하자 자식들만은 기어이 급제시키겠다는 그녀의 그칠 줄 모르는 집념이 마침내 위대한 결실을 맺게 하였던 것이다.

고난을 이겨낸 제주의 여인들

1795년(정조 19)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게 되자 기

녀 출신의 김만덕(金萬德)이 모은 재산 천금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살렸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녀는 어릴 때 전염병으로 부모를 일시에 잃게 되자 기녀의 집에서 자라났다. 그리하여 젊었을 때는 미모의 기생으로 명성이 나 있었다. 뒤에 양가의 출신임을 깨닫고 기적에서 벗어난 뒤에는 객주집을 경영하여 큰돈을 벌었다. 그 돈을 흥년이 계속되고 나라의 구호곡도 가망이 없게 되자 아낌없이 던져 보람 큰일에 쓴 것이다. 그것은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은 당시 유사모(柳思模) 목사의 장계로 정조대왕을 비롯하여 조정대신들에게까지 알려져 전국의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임금을 알현하고 왕경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채제공(蔡濟恭)을 비롯하여 여러 대신들의 초대를 받고 금강산까지 구경하고 돌아왔다.

1781년(정조 5) 김시구(金耆耆) 목사에 의한 홍랑(洪娘·홍윤애洪允愛)의 고문치사사건은 참으로 기구한 사연을 담은 희대의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홍랑의 애인으로 당시 제주에 유배돼 있던 조정철(趙貞喆)을 제거하려던 음모가 발단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정철은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이었던 조태채(趙泰采)의 손자로 노론벽파(老論僻派)에 속했고 김시구는 소론파(少論派)로 서로 당파의 원구가 깔려 있었다.

홍랑은 처음부터 두 가문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목사가 조정철의 죄상을 자백 받으려고 온갖 고문을 가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애인의 생명을 구했다. 실로 애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시킨 열녀요 불의에 끝까지 항거하다 장렬하게 순사한 의녀였던 것이다.

그들의 열, 오늘에 이어가야

이들 세 여인은 모두 공교롭게도 18세기에 살았던 헌걸찬 제주의 여걸들이었다. 그들이 간 지 어언 2백년이 되고 있다. 그동안 김만덕에 대해서는 탑이 건립되고 전시관이 마련됐다 철거되는 등 부분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 뒤가 아직 떨떠름한 상태로 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때 맞춰 이들 세 여인을 기리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라일보 표석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당도서관 경내에 오드승방 정여인을 기리는 비가 세워졌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2000년) 9월에는 전통 자수가(刺繡家) 한상수(韓尙洙) 여사를 비롯하여 도내 여성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고 김만덕 기념관추진위를 탄생시켰다.

또 이 달 22일에는 제주도문예진흥원이 열녀 홍윤애의 순사를 다룬 무용(조흥동 연출·김정학 안무)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그들을 기리는 사업이 비나 공연 등 한때의 움직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열을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